

예방접종 전면중단,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진만익)

금년내에 돼지콜레라 · 구제역 청정화가 최선



최 홍 렬 국장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방역대책은 1996년 5월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매년 빠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으나 전국 각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그 피해는 계속되었던게 사실이다.

방역기관이 예방약을 농가에게 무료배부하는 방식으로 몇 십년을 반복해 시행해 온 것이 결국 양돈농가에서 너무 타성적인 방역이 반복되었고 실제 양돈농가의 방역인식에 문제점만 키워온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비대본이 출범하여 본격활동을 개시한 '99년 9월부터 예방접종 100% 실시를 최우선 과제로 양돈농가별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농가별 채혈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마련, 관련단체간의 갈등 등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다.

이런 활동을 1년6개월간 추진한 결과는 어떠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가 다 할일인데 어렵도 없는 허황된 계획을 설정하여 돈만 낭비한다며 반대와 비아냥도 받았으나 결국 양돈업계 모두가 참여해 주었고, 이제는 우리도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비대본 출범이전에는 양성율이 75%였으나,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상을 전국 평균항체양성률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99년 7월말 경기도 용인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양돈농가가 위기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예방접종에 더욱 힘



을 쏟았고, 지난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돈육수출이 일시에 중단되고 국내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모두가 어려움속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당초 지난 9월말까지 예방접종 중단을 목표로 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이후 이를 5개월 연장하여 2001년 2월말까지로 연기조정되어 3월1일부터는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청정화 단계를 앞두고 있다.

물론 항체양성률만 가지고는 접종중단이 불안하다는 견해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검역원과 각 시도 시험소에서 전국적으로 야외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고, 또한 멧돼지 시료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도 아직까지 전혀 이상이 없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항체양성률 95%이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난 한 해 동안 돼지 콜레라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99년 7월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8개월동안 전국적으로 각 농가에서 예방접종과 소독·차단방역에 최대한 노력해 왔다.

이제는 방역관련전문가, 방역기관, 양돈관련단체와 사육농가 참여하에 종합적인 검토·협의과정을 거친후 중단이후의 대책을 좀더 보강하여 완벽하게 향후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만성형 돼지콜레라의 문제도 제기되었고, 항체검사 데이터가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하지 않느냐는 견해에 대하여 이를 모두 부정하려 함은 아니다.

정책방향, 특히 예방접종 중단이란 중요한 과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데엔 아무런 이론이 없다. 의심가는 분야를 다각도로 세밀하게 조사·점검해서 청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투자를 하여 양돈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백신접종 중단에 대한 불안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추진목표와 시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위험부담이 있는 분야는 최대한 유의해서 재확인해야 하지만 청정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을 목표로 택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양돈산업이 국내 소비에만 국한해서 유지해 갈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우리도 가능한 물량은 빨리 수출을 재개할 수 있어야만 수입 자유화 시대에 축산 관련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금년 내에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동시에 청정화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양돈**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을까?